
교수연구업적 평가분석*

- 문헌정보학분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ssessment of Faculty Performance in Research Achievement : A Focus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ield

정진식 (Jin-Sik Chung)**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교수들의 연구업적 실태규명과 평가를 통해 향후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질문지와 문헌조사 방법으로 2003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교수들의 학술저서와 연구논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41명의 교수들이 출판한 학술저서는 총 49권이며, 연구논문은 총 239편이다. 연구결과 교수 개개의 연구업적에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업적의 질적 및 양적 측면에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교수연구업적, 연구업적 평가, 학술저서, 연구동향, 문헌정보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research performanc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aculty in Korea. By doing so,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research quality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ccording to a survey to the faculty members, 41 respondents published a total of 49 monographs and 239 journal articles during the five year period from 2003 to 2007. The result shows variations in individual scholars publications.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research performance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Keywords】

Faculty Research Performance Appraisal, Scholarly Publication, Research Trend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 서론

오늘날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이에 고등교육의 질과 사회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19C 후반부터는 대학 내·외의 '질의 시대'로 접근하고 있다. 대학의 질이 대학교수의 주인의식 속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학교수의 합리적인 업적평가야말로 개혁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수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국내·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윤운성 1998).

대학성장과 발전에 핵심동력이 되는 교수의 연구능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대학을 선택하는 입시생들에게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어떤 대학이 얼마만큼 특성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서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기업에서는 필요로 하는 연구 인력이나 연구정보가 어느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라 장·단기 산학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연구능력은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 본 연구는 2009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jschung@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 2009년 5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09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09년 6월 15일

또 다른 하나는 연구 및 연구업적은 교수자신의 직무상 발전의 도모이다.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는 교수발전의 개념으로 조직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직무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연구업적별로 교내 연구비를 배분하여 성과급(merit pay)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구업적이 부족하면 연구 성과지원금의 중단은 물론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더 나아가 정년퇴임 이후 명예교수 임용에까지도 반영되는, 교수 자신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고리가 되고 있다. 연구는 교수의 개인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해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분방한 옵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연구업적이 중요한 원천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2004)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지난 1999년 시작된 BK21 사업이 대학의 연구력 높이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대한연구력 강화를 위한 1단계 BK21 사업성과의 확대 발전을 위한 2단계 사업을 2006부터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교수업적 평가제의 도입과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하여 녹색성장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필연성을 인식하고 대학발전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수발전제도 연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수들도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문헌을 통해서 볼 때 대학 구성원 집단 간에 일반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는 교수의 사명은 크게 교육활동, 연구 활동, 사회봉사활동으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교육이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혹은 그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교수의 기본적인이고 핵심적인 업무이며,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둘째, 연구는 지식의 창조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역시 교수의 기본적인 책무의 하나이며, 대학의 존재 이유이다. 셋째, 사회봉사는 교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학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는 연구영역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문헌정보학분야 교수들의 연구업적(학술논문과 저서 중심으로) 현황조사를 통하여 향후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수의 책무와 연구업적평가

대학교육의 질적 평가는 내부 질적 평가와 외부 질적 평가로 구분한다. 내부 질적 평가(IQA)는 대학의 책임으로 정의될 수 있고, 외부 질적 평가(EQA)는 교육부의 책임으로 정의될 수 있다. 외부평가 없이 책무성의 제고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자체평가 없이 질적 향상은 불가능하다.

교수는 대학의 주체이며, 대학의 사명은 교수에 의해 완수된다. 교수로서의 책무는 학문적인 영역이나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교수는 교육자, 연구자, 봉사자, 시범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한다(Perkins 1973). 즉, 교수는 지식을 전수하고 생성하는 교육자와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응용하여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교수의 책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교권만을 강조하고 자율성이 없을 때, 혹은 그 반대일 때도 대학은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교수업적 평가는 자율성을 신장하고 또 교권확립이라는 이중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발적 합리적 결정이 요구된다.

교수 평가의 당위성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긴 대학의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날에도 찬·반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교수 평가의 불필요성과 부당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며,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창의성을 둔감케 하고 동료 간의 관계를 단절시켜 궁극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Albach 1991). 또 다른 입장은 상당 부분 현실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제 도입은 대학의 가치에 대해 전혀 동정적이지 않거나 고등교육의 본질과 진정한 이익에 대해 전혀 무지인 권력의 소유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시각이다. 그리하여 적절치 못한 외부적 요구 사항에 의해 대학이 입게 되는 손상은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며, 대학의 손상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손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Wright 1989).

이러한 견해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학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교수 업적평가제도의 도입은 대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수에 대한 연구업적평가의 목적은 교수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을 일방적으로 구속

하고 제한하여 학문적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잠금 장치가 아니라,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 교수들에게 책무수행에 대한 기능을 보상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교수 개인과 대학 전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교수의 자질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연구업적에 관한 평가는 연구실적의 연구편수, 연구내용, 연구의 질과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업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연구논문과 저술이다. 연구란 지식의 발전과 예술의 창조를 위한 생산적 활동이다. 새로운 지식의 발굴과 예술의 창조는 그 결과를 유포 내지는 보급할 의무까지를 지니며, 이것이 곧, 교수의 저술 활동인 것이다. 교수는 새로운 지식의 발굴과 예술을 창조함은 물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수할 의무도 있다. 그러므로 연구와 저술을 교수 업적평가의 주요 척도로 정하게 된다(Bowen 1986).

“저술이 없으면 자멸하고 만다”(publish or perish)는 말은 연구와 저술활동이 교수책무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듯이 저술활동은 교수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는 교수발전의 개념으로 조직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직무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논문과 저술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출판물에 대한 양과 질에 관한 판단기준의 부재, 연구업적과 강의와의 관계 및 학문영역의 차이에서 오는 연구 및 저술의 비교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박명수 1994).

연구업적물의 평가는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기준, 발표 물(논문 또는 저서) 수의 적정선, 교수의 직급에 따른 차이, 대학별 유형에 따른 차이, 대학 유형에 따른 논문의 중요도 차이, 연구 몰두로 인한 강의 불성실 등이 연구업적 평가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2.2 연구업적 평가내용 및 방법

대학교수들의 책무는 수업활동과 연구 및 창작활동, 대학봉사, 그리고 전문 활동 및 공공봉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연구업적평가는 대학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다르고 전공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폭넓은 의미의 연구활동은 출판된 저작물, 출판되지 않았으나 공인된 저작물, 작품, 구두로 표현된 업적, 문서형태의 업적, 포상형태 등으로 구분된다(Leonard & Schmitt 1974)(표 1 참조).

〈표 1〉 연구업적물의 유형과 내용

유형	내용
출판된 저작물	교과서, 학술연구서, 번역서, 편저서, 학술논문, 서평, 비평, 공동출판저서
출판되지 않은 공인된 출판물	연구비지원 수행 연구보고서
작품	예술 창작품(음악, 미술, 건축, 의상, 체육), 비디오작품, 컴퓨터 프로그램제작
구두표현 업적	각종 세미나, 토론회, 강연회, 세미나 토론자 또는 기록자
문서형태 업적	학술저서나 연구논문의 심사보고서
포상형태 업적	학술상, 논문상, 저술상

1989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조사 분석한 자료(이성호 1995, 윤운성 1998)에 따르면, 학술서적의 저술에 있어서는 약 72% 정도의 교수들이 3년 동안에 걸쳐 단 1권의 저서도 출판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 28% 정도의 교수들이 0.46권의 학술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0.15권의 학술서적을 저술, 출판한 셈이 되며 저술과 편집을 통합했을 경우 연평균 0.25권의 학술서적을 출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발표 업적은 전체의 85.6%가 3년간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나, 14.4%에 해당되는 교수들은 3년 동안 단 1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기간 중 우리나라 교수들은 연평균 1.59편의 논문을 책이나 학술지에 발표하였다(표 2 참조).

한편, 교육부 자료(산학연일보 1995)에 의하면, 우리나라 94개 4년제 대학의 논문발표 및 저서 등의 연구실적은 교수 1인당 2.4편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순위를 보면, P대 185명의 교수가 1,297편으로 교수 1인당 7.01편, H대 1인당 6.08편, S대 1,389명의 교수가 6,664편으로 교수 1인당 4.70편으로 나타났다. 94개 대학의 43.6%인 41개 대학의 교수 1인당 연구업적은 1~2편이고, 14.9%인 14개 대학의 1인당 업적은 1편미만으로 나타나 58.5%에 달하는 대학에서 평균 2편미만의 연구업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8년 K대학의 사례를 보면, ‘교수연구실적 평가지원 사업’ 결과 평가대상 교수 전체의 33%에 달하는 교수들이 기본연구 성과에 못 미치는 연구 성과를 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 대학은 교수 연구업적별로 교내 연구비를 배분 총 21억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교수는 2천5백만 원을 그리고 1천만 원을 넘게 받은 교수는 전체의 3.9%에

〈표 2〉 3년간 연구업적별 분포(%)

업적유형 \ 수(권·종·편)	0	1	2	3	4	5	6이상	전체	3년간 평균	1년간 평균
저술한 학술서적(권)	71.8	17.5	6.5	3.0	0.7	0.2	0.3	100.0	0.46권	0.15권
편집한 학술서적(권)	79.4	12.7	4.1	1.7	0.7	0.2	1.3	100.0	0.30권	0.10권
책, 저널게재논문(편)	14.4	5.5	14.3	18.6	10.5	1.6	25.1	100.0	4.77편	1.59편
학술회의 발표논문(편)	41.3	17.3	13.4	9.0	4.1	4.4	10.5	100.0	2.45편	0.82편
출원한 특허, 발명(종)	97.6	1.2	0.6	0.3	0.3	0.1	0.0	100.0	0.05종	0.02종
공연, 예술작품전시(종)	93.6	0.1	0.3	0.7	0.3	0.3	4.7	100.0	0.13종	0.04종

불과했다. 이 대학은 교수 승진 때 연구실적 요건을 강화하고, 업적미달이면 연구 성과지원금을 중단하고, 명예교수 임용에도 연구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지원 사업을 마련해 연구업적생산을 독려했다. 대학 당국은 연구지원 사업 도입 이후 연구역량이 뛰어난 교수들이 더욱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어 인지도와 영향력이 낮은 등급의 학술지 논문 게재를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자평했다(교수신문 2008).

연구업적평가 방법으로는 계량서지학과 사회관계분석이론(Social Network Analysis: SNA)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계량서지학을 응용하면 연구 키워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구 분야에서의 논문 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이론에 따르면 연구자, 연구부서, 연구 분야, 키워드, 국가, 사업 등간의 관계를 엮어 조직 내 친분관계, 논문의 공저관계, 논문의 인용관계 등을 파악, 분석해서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SCI 논문 게재 수, 피 인용지수 등 정량적 연구업적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업적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평가방법으로는 DB간 데이터 구조의 차이, 주제 분류의 차이, 저자명의 표현형식, 다양한 기관명, 저자 소속기관의 일치여부, 저자별 기여도 가중치, 중복레코드 선별 등을 구분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연구업적평가는 연구업적의 질(Quality), 연구업적 생산량(Quantity), 연구업적이 미치는 효과(Impact) 및 그 활용 정도(Utility)의 네 부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측정방법은 정량적(Bibliometrics) 평가와 정성적 평가(Peer Review), 그리고 양자 혼합형(Peer Review supplemented with Bibliometrics)의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영국의 RAE(Research Assessment Exercise) 보고서의 세계 각국 연구업적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SCI급 학술지 및 관련 계량적 측정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성적 방법을 적용하는 국가의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또 연구업적 평가의 목적은 순위부여가 아니라 연구업적의 질에 대한 인증의 형태, 즉 일정 기준에 대한 통과여부를 가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기관의 연구지원금 책정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청화대학은 승진과 연차별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연구업적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학술논문 및 단행본이 중심이며, 학술논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 특징은 SCI/SSCI/A&HCI 뿐만 아니라 ISTP/ISSHP와 같은 기준도 병행하고 있다. 권위 있는 국내학술지와 SCI급 학술지에 동일한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학기준협회가 설립되면서 대학 평가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연구자 개인 및 대학의 연구업적평가로 특화된 평가체제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동료교수들에 의한 자체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적 평가와 함께 정량적 평가를 고려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CiNii'¹⁾라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통합검색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유럽의 네덜란드는 연구업적평가에 있어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의 주체는 VSNU(The Netherlands Universities)라는 대학협의체이며, 평가방법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정성적 평가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해당 분야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켜 구성

1) CiNii: 일본국립정보연구소(NII)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일본 국내 저널의 인용색인 뿐만 아니라 해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까지 통합적으로 검색하여 결과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하며, 정량적 평가의 경우는 단순히 기준에 개발된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저널의 해당 학문분야에서의 평균 인용률, 대상논문이 속한 학문분야에서의 평균 인용률과 같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척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네덜란드의 연구업적평가 체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에서 중점 육성하려는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한 방법 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3 연구업적 평가기준

업적평가에서 중요한 문제는 각각의 영역을 어떤 비중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인 평가 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교수업적평가의 본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다. 학문의 영역과 성격이 다르고 산출되는 연구물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획일적인 평가는 많은 갈등을 야기하게 되므로 학문별 계열별로 가중치를 두고 있다(원영상 1996).

교수업적 평가의 기준은 대학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두기도 한다. 교수 업적은 크게 연구, 교육, 봉사 세 영역에서 평가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영역에만 국한해서 다루고자 한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기획대토론회(2008)에서 발표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Peer Review'에 의한 저술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의 성과는 동료 학자들에 의해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된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이다. 이는 일종의 '소비자 보호'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연구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자들 사이의 자기검증 절차이다.

둘째, 평가의 기준을 지나치게 정량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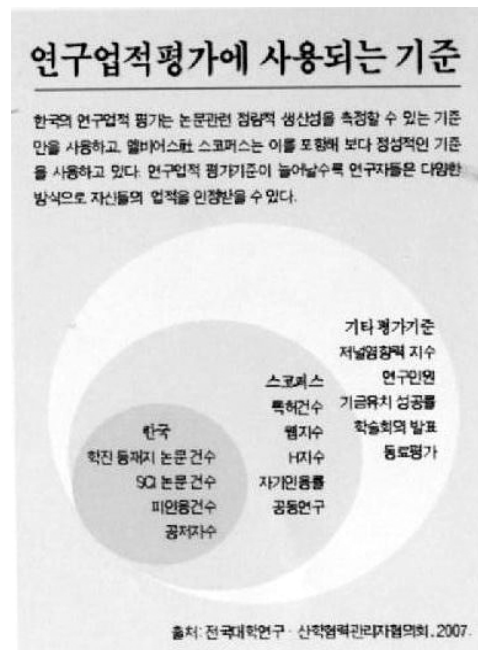
평가는 단순한 측정이 아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계량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계량화는 가능한 최소화 되어야 한다.

셋째, 인용지표(Citation Index)를 파악할 수 있는 저술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SSCI나 SCI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논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논문이 관련 학계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동료 학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인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논문에 대한 참다운 평가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정보를 citation index가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2007)는 추계세미나를 통해 야시스 아다치 엘비어스사의 연구업적평가에 있어서의 계량서지학 이용방안을 소개했다. 엘비어스사는 2004년 출시된 학술정보 검색 툴 '스코퍼스'(Scopus)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국 <더 타임스>가 세계 대학 순위 평가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아다치는 스코퍼스는 업적평가에 출판건수, 특허건수, 웹-지수, H지수, 피 인용건수, 자기 인용률, 공동연구, 공저자 수를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저널영향력지수, 연구인원(학생, 교수진), 기금유치(성공률), 학술회의 발표, 동료평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업적 평가기준

이제까지 연구업적은 총 논문발표건수, 총 피 인용건수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논문발표건수는 몇 편이나 발표했느냐는 생산성을 측정하는데 편리하지만, 해당 논문의 영향력을 알 수 없고, 총 피 인용건수는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소수의 다량 피 인용논문에 의존해 저자가 단순히 유명 연구자의 공저자인 경우를 구분해 낼 수 없다. 평균 피 인용건수는 다른 연령대의 저자와 업

적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논문 수가 적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잣대로 SCI 게재 논문 편수와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²⁾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편수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 평가기준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SCI 논문수가 많은 연구자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쓴 연구자를 학계에서 더 높이 평가하고, 학문분야별로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는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SCI 논문수와 임팩트 팩터가 절대적인 기준처럼 활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들 지수가 전부가 아니라 h지수, g지수, y지수, 매튜 벨류 등 학술지와 논문의 실제적인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수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교수신문 2006).

3. 연구방법

3.1 표집

본 연구는 질문지와 문헌(학회지)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문헌정보학분야 교수들의 '정보이용행태 및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7년 8월 10일~9월 10일까지 인문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소속의 문헌정보학분야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보추구행위와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개 카테고리 14개 문항의 질문지를 작성하여 2008년 5월 1일~6월 30일까지 약 60일 동안 국내 32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 140여명의 교수들에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응답지는 전체 65명(46.4%)이었으나 이 가운데 응답기록이 분명치 않은 14명을 제외한 41명(29.3%)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교수가 31명이며 여자교수는 10명이다. 또 연령별로는 남자교수 30대-1명, 40대-10명, 50대-10명, 60대-10명이며, 여자교수 30대-1명, 40대-4명, 50대-5명이다. 직급별로는 교수 25명, 부교수 7명, 조교수 7명 전임강사 2명으로 구분된다. 응답자의 회수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많은 교수들이 연구업적 평가 및 정책반영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연구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2)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어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다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에 비해 얼마나 많이 인용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한다.

3.2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작성된 질문지 내용은 연구자 기초정보를 비롯해서 정보이용행태 분석과 관련된 정보추구내용(Q1~Q9)과 인터넷접속관련(Q10~Q12) 그리고 연구업적분석을 위한 연구 논문 및 저서출판(Q13~Q14)에 관련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3 참조).

〈표 3〉 질문지 문항내용

질문지 내용	세부항목
연구자 기초정보	성별, 나이, 소속대학 및 세부전공, 최종학력, 근무연수, 직급
정보추구관련-9개 문항(Q1~Q9)	정보추구목적, 연구 활용매체, 강의활용매체, 저서집필 시 활용매체, 연구논문작성시 활용매체, 세미나 주제발표시 활용매체, 정보수집경로, 국내외문헌의존도
인터넷관련-3개 문항(Q10~Q12)	활용도가 가장 높은 웹사이트, 인터넷이용목적, 인터넷을 통한 지식축적만족경도
출판관련-2개 문항(Q13~Q14)	최근 5년 동안 집필 및 출판한 저서, 최근 5년 동안 발표한 연구논문

질문지 분석과정에서 연구내용의 분량이 당초 예상보다 과다 초과되는 현상이 나타나 부득불 교수 연구업적과 관련된 2개 문항만을 선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분석하기로 한다.

Q13(최근 5년 동안 집필 및 출판한 단행본저서)과 Q14(최근 5년 동안 발표한 연구논문)에 대한 질문지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Q13의 학술저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Q14 연구논문의 경우 발표논문의 게재지 표기 등 출처에 대한 기록이 분명치 않아 응답한 41명의 연구논문 게재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2003~2007)동안에 출판된 문헌정보학분야의 4개 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e-journal 검색을 수행하였다.

3.3 학술저서 및 연구논문에 대한 배점기준 및 인정환산 점수

연구실적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 및 인정환산 평점은 각 대학 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두고 있어, 본 연구에서

는 국내의 H대학에서 2009년도 5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 사례를 임의 적용하였음을 밝혀둔다.

3.3.1 학술저서

저서 및 기타 저작물은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 저작물로 일반에게 공개된 것에 한하며, 저서배점기준 및 평점은 <표 4>와 <표 5>에서 보는바와 같다. 단, 개정판은 원저서의 30%를 인정한다.

<표 4> 연구업적-저서배점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평 점	
저 서	학술저서 ²⁾	국제	40
		국내	20
	사전		30
	번역서 ³⁾	초역	15
		재역	10
	편저서	국제	10
국내		5	
기타 저작물 ¹⁾	시집, 소설집, 희곡집, 작곡집, 작품논집	15	

- 1) 전공과 관련이 있는 각종 창작서를 일컬음.
- 2) 전공 관련저서에 한함(전문학술저서, 대학교재 수준의 저서).
- 3) 학술서, 학문적 가치가 있는 저서를 일컬음.

<표 5> 저술유형 및 평점

저 술 유 형	평 점	인정환산률
1인 단독연구	20	100%
2인 공동연구	14	70%
3~4인 공동연구	10	50%
5인 이상 공동연구	6	30%
번역서	15	
편저서	5	

3.3.2 연구논문

논문은 내용과 체제가 학술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평가하며, 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등급별 배점기준과 평점은 <표 6>과 <표 7>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6> 연구업적-논문배점기준

분 야	평 가 항 목	평 점
학술지	국제우수학술지(SCI, SSCI, A&HCI)게재 논문	40
	국제 우수학술지(EXPANDED급)게재 논문	30
	국내 우수학술지(학진 등재지)게재 논문	20
	국내 우수학술지(학진등재후보지)게재 논문	15
	국제 일반학술지	15
	국내 일반학술지*	10
	기타학술지 및 기념논문집 게재 논문	5
	서평, 평론, 비평	3
학위논문	박사학위 논문	15
논문집	본 대학 및 부설연구소 논문집 게재 논문	7
	타 대학 및 부설연구소 논문집 게재 논문	5

* 국내 일반 학술지는 매 학년도에 평가하여 정한다.

<표 7> 저술유형 및 평점

저 술 유 형	평 점	인정환산률
1인 단독연구	20	100%
2인 공동연구	14	70%
3인 공동연구	10	50%
4인 공동연구	6	30%
5인 이상 공동연구	4	20%

4. 수집 데이터 분석

4.1 연구실적 평가분석

4.1.1 학술저서 실적현황

가. 학술저서의 저술유형별 분석

질문지에 응답한 41명의 교수들이 지난 5년(2003~2007) 동안 집필한 학술저서는 총 49권이다.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저술유형별로는 단독저서 13권(26.5%), 공동저서 24권(59.0%), 번역서 10권(20.4%), 편저서 2권(4.1%)이다.

저자수의 유형별로 세분하면, 1인에 의한 단독저서를 집필한 교수는 6명이 13권(26.5%)이며, 공동저서에는 2인 공동이 3명 6권(12.2%), 3~4인 및 5인 이상의 공동저서는 10명이 18권(36.7%), 번역서는 4명이 10권(20.4%), 편저서는 2명이 2권(4.1%)으로 공동저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협회총서 차원에서 20인으로 구성된 매머드 공동저자집단을 제외하면, 2인 공동저서와 3~4

〈표 8〉 학술저서 실적현황(2003~2007): 저술유형별 분석
단위: 권(%)

저자 수 연구자	단독	공2	공 3~4	공5 이상	번역	편저	계
R 01							0
R 02				1			1(2.0)
R 03							0
R 04	2						2(4.1)
R 05							0
R 06							0
R 07							0
R 08							0
R 09							0
R 10				3			3(6.1)
R 11							0
R 12							0
R 13							0
R 14							0
R 15					6		6(12.2)
R 16							0
R 17	2	3		3			8(16.3)
R 18							0
R 19		1					1(2.1)
R 20	4	2		1			7(14.3)
R 21	1			2	1		4(8.1)
R 22							0
R 23							0
R 24	2						2(4.1)
R 25			2				2(4.1)
R 26	2			2		1	5(10.2)
R 27							0
R 28					1	1	2(4.1)
R 29							0
R 30							0
R 31				1			1(2.1)
R 32							0
R 33							0
R 34							0
R 35							0
R 36							0
R 37				2	2		4(8.1)
R 38							0
R 39							0
R 40							0
R 41				1			1(2.1)
계	13 (26.5)	6 (12.2)	2 (4.1)	16 (32.7)	10 (20.4)	2 (4.1)	49 (100.0)

인에 의한 공동저서는 4명이 8권(16.3%)으로 단독저서의 절반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학술저서를 가장 많이 집필한 교수는 R17(8권 16.3%)과 R20(7권 14.3%)으로 단 두 사람이 전체 학술저서 출판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출판비율이 10%를 넘는 R15(6권 12.2%)와 R26(5권 10.2%)을 더하면 4인에 의한 저서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수의 연구에 의한 지나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 R15의 경우는 5년 동안 번역서에만 집중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R02와 R10, R31, R41은 20인 공동 집필에만 참여하고 있어 학술저서 출판에 소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술저서의 연도별 분석

41명의 교수에 의해 5년 동안 출판한 학술저서가 총 49권이므로 이를 개인별로 보면, 교수 1인당 1년 평균 0.24권이 되며, 5년 동안에는 평균 1.19권을 출판한 셈이 된다.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R15와 R17은 매년 1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하고 있으며, R20과 R21도 2003년 이후부터 매년 학술저서를 집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업적 평가를 위한 배점기준의 인정환산율에 의한 평점으로 보면 R20이 7권 114점으로 가장 높으며, R17(8권 100점), R15(6권 90점), R26(5권 57점), R21(4권 47점), R37(4권 42점), R10(3권 18점), R04(2권 40점) 등이 된다. 또 1인당 1년 평균 출판권수를 보면 R17 1.6권, R20 1.4권, R15 1.2권, R26 1권, R21과 R37이 각각 0.8권, R10 0.6권 순이다. 학술저서의 출판권수로 볼 때 R17이 1년 평균 1.6권으로 가장 많지만, 인정환산점수로 볼 때는 R20이 1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저서출판 시 저술유형 즉, 단독저서(100% 20점), 2인 공저(70% 14점), 3~4인 공저(50% 10점), 5인 이상(30% 6점), 번역서 15점, 편저서 5점 등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41명의 교수들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이 경과하는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판한 교수는 15명으로 36.6%에 불과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넘는 63.4%에 해당되는 26명의 교수들이 5년 동안 단 한권의 저서도 출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기준으로 볼 때 41명의 교수 가운데 R17과 R20 두 사람만이 매년 연구비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술저서 출판활동을 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단행본 부재 현상

〈표 9〉 학술저서 실적현황(2003~2007): 연도별 분석

단위: 권(평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년 평균
R 01						0	0
R 02			1(6)			1(6)	0.2
R 03						0	0
R 04	1(20)		1(20)			2(40)	0.4
R 05						0	0
R 06						0	0
R 07						0	0
R 08						0	0
R 09						0	0
R 10	1(6)	1(6)		1(6)		3(18)	0.6
R 11						0	0
R 12						0	0
R 13						0	0
R 14						0	0
R 15	1(15)	1(15)	2(30)	1(15)	1(15)	6(90)	1.2
R 16						0	0
R 17	1(14)	1(6)	1(20)	2(12)	3(48)	8(100)	1.6
R 18						0	0
R 19	1(14)					1(14)	0.2
R 20		2(34)	2(40)	1(6)	2(34)	7(114)	1.4
R 21		1(6)	1(15)	1(6)	1(20)	4(47)	0.8
R 22						0	0
R 23						0	0
R 24	1(20)		1(20)			2(40)	0.4
R 25			1(10)		1(10)	2(20)	0.4
R 26	1(6)		2(26)	1(5)	1(20)	5(57)	1.0
R 27						0	0
R 28	1(5)		1(15)			2(20)	0.4
R 29						0	0
R 30						0	0
R 31					1(6)	1(6)	0.2
R 32						0	0
R 33						0	0
R 34						0	0
R 35						0	0
R 36						0	0
R 37		3(36)	1(6)			4(42)	0.8
R 38						0	0
R 39						0	0
R 40						0	0
R 41					1(6)	1(6)	0.2
계	8(100) 0.19	9(103) 0.22	14(208) 0.34	7(50) 0.17	11(159) 0.27	49(620)	9.80

4.1.2 연구논문 실적현황

가. 연구논문의 저술유형별 분석
 문헌정보학분야의 교수들이 5년 동안에 전공분야의 4 개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은 총 239편이다. 연구논문

을 저술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연구가 128편(53.6%)이며, 공동연구는 111편(51.0%)이다. 단독연구의 비중이 공동연구보다 2.6%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연구논문 실적현황(2003~2007): 저술유형별 분석

단위: 편(%)

연구자	저자수	단독	공2	공3	공4	공5 이상	계
R 01		7	3		1		11(4.6)
R 02			1				1(0.4)
R 03		1	7				8(3.3)
R 04		2					2(0.8)
R 05							0(0.0)
R 06		3	1				4(1.7)
R 07							0(0.0)
R 08		6					6(2.5)
R 09		5			1		6(2.5)
R 10		3					3(1.3)
R 11		3					3(1.3)
R 12			2		1		3(1.3)
R 13			1	1			2(0.8)
R 14			1				1(0.4)
R 15			7				7(2.9)
R 16			5				5(2.1)
R 17		3	5				8(3.3)
R 18		2	1				3(1.3)
R 19		5	6	1	1		13(5.4)
R 20		3	15	2			20(8.4)
R 21		11	1	2			14(5.9)
R 22		4					4(1.7)
R 23						1	1(0.4)
R 24		2					2(0.8)
R 25		2	1	3			6(2.5)
R 26		23	3				26(10.8)
R 27							0(0.0)
R 28		3					3(1.3)
R 29		5	1	1			7(2.9)
R 30		2					2(0.8)
R 31		4					4(1.7)
R 32		1	1				2(0.8)
R 33		4	4	4	1		13(5.4)
R 34		5	2		1		8(3.3)
R 35		4					4(1.7)
R 36		2	1				3(1.3)
R 37		5				2	7(2.9)
R 38		1	5	1	1		8(3.3)
R 39		2	2		2		6(2.5)
R 40			3				3(1.3)
R 41		5	2	1		2	10(4.2)
계		128(53.5)	81(33.9)	16(6.7)	9(3.8)	5(2.1)	239(100.0)

공동연구는 2인 공동이 81편(33.9%), 3인 공동 16편(6.7%), 4인 공동 9편(3.8%), 5인 이상 5편(2.0%)이다. 공동연구에서는 2인 공동연구가 가장 많으며 참여 연구자 수가 많을수록 실적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R26과 R20 2명의 교수는 5년 동안 각각 26편(10.8%)과 20편(8.4%)의 연구논문을 A2급(KCI급)에 게재하고 있어 연구능력 측면에 탁월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R26과 R20을 비롯해서 R21이 14편(5.9%), R19와 R33은 각각 13편(5.4%), R01은 11편(4.6%) 그리고 R41이 10편(4.2%)로 7명의 교수가 10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반면, R02와 R14, R23은 공동연구자로 1편(0.4%)씩만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R05와 R7 그리고 R27 이들 3명의 연구자는 5년이 경과하는 동안 전공분야 A2급(KCI) 이상의 학술지에 단 한편의 연구논문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연구논문의 연도별 분석

41명의 교수들이 5년 동안 학회지(A2급, KCI급)에 발표한 연구논문은 총 239편이다. 교수 1인당 1년 평균 1.16편, 5년 동안에는 평균 5.83편의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다수의 교수들이 학술저서(단행본)출판에 비해 연구논문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가운데는 46.3%에 해당되는 19명의 교수들이 매년 1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또 17%에 해당되는 7명이 매년 2편 이상씩을 발표하고 있다.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R26은 5년 동안 5.2편, R20은 연간 4편 이상을 발표하는 뛰어난 연구능력을 보인 반면, R05와 R07 그리고 R27은 5년 동안

단 한편의 연구논문도 발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의 연구논문 발표실적은 2007년 중반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41편으로 1인당 년 평균 1편에서 2004년 43편으로 년 평균 1.05편인 0.05%증가, 2005년 46편으로 년 평균 1.12편인 0.07%증가, 2006년 58편으로 년 평균 1.41편인 0.29%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2007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어 학문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환산점수(평점)를 적용해 보면 논문에 대한 연구업적이 전혀 없는 3명을 제외하고, 최저 1편(14점)에서부터 최고 26편(502점)까지 교수들 간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수들이 연구업적을 통해 받는 연구비 액수는 교내·외 장단기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교내연구비의 경우 현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술연구비 수혜대상은 년 간 인정환산비율 100%인 평점 20점 이상이면 년 1회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41명의 교수들 가운데는 46.3%에 해당되는 19명의 교수들이 년 평균 100%에 해당되는 1편 이상 5.2편까지의 연구논문을 생산하고 있으며, 5년 평점 100점이 넘는 15명의 교수들은 평균 1회 이상의 연구비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Research 상 또는 Best teacher 상을 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나머지 26명의 교수들은 2~3회 정도의 부분적인 연구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들의 연구결과는 업적을 통한 연구비 수혜에 목적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책임과 연구업적이 곧, 후학양성을 위한 학문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11〉 연구논문 실적현황(2003~2007): 연도별 분석

단위: 편(평점)

연구자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년 평균
R 01		4(60)	2(34)	2(34)	3(60)	11(188)	2.2
R 02			1(14)			1(14)	0.2
R 03	1(20)	1(14)		4(56)	2(28)	8(118)	1.6
R 04	1(20)		1(20)			2(40)	0.4
R 05						0	0
R 06	2(34)	1(20)		1(20)		4(74)	0.8
R 07						0	0
R 08	1(20)	1(20)	1(20)	2(40)	1(20)	6(120)	1.2

(표 11 계속)

연구자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년 평균
R 09	1(20)	1(20)	1(20)		3(46)	6(106)	1.2
R 10		2(40)			1(20)	3(60)	0.6
R 11		2(40)		1(20)		3(60)	0.6
R 12	1(6)	1(14)		1(14)		3(34)	0.6
R 13	1(10)			1(14)		2(24)	0.4
R 14			1(14)			1(14)	0.2
R 15	1(14)		2(28)	3(42)	1(14)	7(98)	1.4
R 16		1(14)		3(42)	1(14)	5(70)	1.0
R 17	2(34)	1(14)	2(34)	2(28)	1(20)	8(130)	1.6
R 18			1(20)		2(34)	3(54)	0.6
R 19	1(20)	2(34)	5(70)	3(42)	2(34)	13(200)	2.6
R 20	3(48)	6(90)	4(56)	4(58)	3(38)	20(290)	4.0
R 21	1(20)	4(80)	2(34)	4(70)	3(50)	14(254)	2.8
R 22	2(40)			1(20)	1(20)	4(80)	0.8
R 23				1(4)		1(4)	0.2
R 24	1(20)				1(20)	2(40)	0.4
R 25		2(40)	1(14)	1(10)	2(20)	6(84)	1.2
R 26	5(100)	5(100)	5(94)	4(74)	7(134)	26(502)	5.2
R 27						0	0
R 28	1(20)	1(20)	1(20)			3(60)	0.6
R 29	1(10)		2(40)	2(34)	2(40)	7(124)	1.4
R 30			1(20)		1(20)	2(40)	0.4
R 31				3(60)	1(20)	4(80)	0.8
R 32	1(14)	1(20)				2(34)	0.4
R 33	3(42)		3(40)	3(46)	4(60)	13(188)	2.6
R 34	2(20)	2(40)	2(40)	1(14)	1(20)	8(134)	1.6
R 35	2(40)		1(20)		1(20)	4(80)	0.8
R 36	1(20)		1(20)		1(14)	3(54)	0.6
R 37	1(20)	3(44)	1(20)	2(24)		7(108)	1.4
R 38	1(20)		1(14)	2(28)	4(44)	8(106)	1.6
R 39	1(6)		3(46)	2(28)		6(80)	1.2
R 40	1(14)			1(14)	1(14)	3(42)	0.6
R 41	2(30)	2(24)	1(20)	4(38)	1(14)	10(126)	2.0
계	41(682) 1.0	43(748) 1.05	46(772) 1.12	58(874) 1.41	51(818) 1.24	239(3894)	47.8

5. 결론 및 제언

교수들이 수행하는 연구결과의 양과 질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려는 일이며 더 나아가 연구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평가요인이 된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수행된 문헌정보학분야 교수들의 연구 실적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저서를 저술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면 응답자 41명의 교수들이 5년 동안 출판한 저서는 총 49권이

다. 저술유형별로는 단독저서가 13권(26.5%)이며 공동저서는 24권(59.0%), 번역서 10권(20.4%), 편저서 2권(4.1%)이다. 공동저서 가운데는 2인 공저 6권(12.2%), 3~4인 공저 2권(4.1%), 5인 이상 공저 16권(32.7%)이 포함 된다. 20인으로 구성된 매머드집단에 의한 협회차원의 공동저서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단독저서가 가장 많이 출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술저서는 단 2명의 교수 R17(8권)과 R20(7권)에 의한 저서가 전체의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R15(6권)와 R26(5권)을 포

합하면 4명의 저서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소수에 의한 지나친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술저서를 연도별로 분석하여 보면 교수 1인당 1년 평균 0.24권을, 5년 동안에는 평균 1.19권을 출판했다. 41명 가운데 9.7%에 해당되는 4명의 교수만이 매년 1권 이상의 저서를 출판하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한 사람이 1년에 1권도 출판하지 못하고 있다. 5년이 경과하는 동안 1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판한 교수는 15명으로 36.6%에 불과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넘는 63.4%에 해당되는 26명의 교수들이 5년 동안 단 한편의 저서도 출판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환산율에 의한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전체가운데 4.87%에 해당되는 단 2명만이 매년 연구비수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술저서 출판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단행본 부재현상을 초래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 연구논문을 저술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면 교수들이 5년 동안 전공분야의 4개 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논문은 총 239편이다. 저술유형별로는 단독연구가 128편(53.6%)이며, 공동연구는 111편(51.0%)이다.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2.6%정도 많다. 공동연구는 2인 공동이 81편(33.9%), 3인 공동 16편(6.7%), 4인 공동 9편(3.8%), 5인 이상 5편(2.0%)순으로 2인 공동연구가 가장 많으며, 참여 연구자 수가 많을수록 실적 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교수는 7명으로 전체의 44.7%에 해당 107편의 논문을 발표한 반면, 3명의 교수는 5년이 경과하는 동안 전공분야 A2급(KCI)이상의 학술지에 단 한편의 연구논문도 게재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연구논문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보면 41명의 교수들은 1인당 1년 평균 1.16편, 5년 평균 5.83편의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가운데 46.3%에 해당되는 19명의 교수들이 매년 1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또 17%에 해당되는 7명은 매년 2편 이상씩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의 교수(R26과 R20)은 년간 5.2편과 4편 이상을 발표하는 남다른 뛰어난 연구능력과 테크닉으로 학문발전에 전력투구하고 있는가 하면, 3명의 교수는 5년 동안 단 한편의 논문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환산점수(평점)를 적용해 보면 논문에 대한 연구업적이 전혀 없는 3명을 제외하고, 최저 1편(14점)에서부터 최고 26편(502점)까지 교수들 간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1명의 교수들 가운데는 46.3%에 해당되는 19명의 교수들이 년 평균 100%에 해당되는 1편 이상 5.2편까지의 연구논문을 생산하고 있으며, 5년 평점 100점이 넘는 15명의 교수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연구비수혜를 받고 있는가 하면, 이와 반대로 26명의 교수들은 2~3회 정도의 부분적인 연구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은 2007년 중반 조사시기를 기점으로 할 때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어 학문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으로 볼 때 연구실적은 1년에 한편(권) 이상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전공분야의 학회지 KCI급에 게재 또는 편당 100% 20점 이상이 되어야만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수는 학문분야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연구비 수혜와 함께 Researcher 상, Best teacher 상 등 일거양득의 보상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반대로 교수들의 연구업적 생산을 저조는 해당분야 학문발전의 둔화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업적의 양적 및 질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술저서의 경우 연구논문에 비해 업적생산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학술저서 부재현상 극복을 위한 독려차원에서 배점기준과 평점을 현행 100% 20점을 최소 150% 30점~최고 200% 40점까지 올려주어 학술저서출판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논문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원 기획대토론회에서 발표된바와 같이 ①Peer Review 형식으로 동료학자들에 의한 사전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발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논문의 계량적인 정량평가 보다는 정성적인 주관적 평가방식을 채택, 논문 편수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질 평가로 창의적 연구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연구 성과 우수교수(상위 10% 정도)에게는 정년연장, 연봉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연구실적이 부족한 성과부진교수(하위 10% 정도)에게는 스스로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강의시수 확대 또는 입학사정관 등 교육, 봉사강화에 역점을 두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교수신문 2009).

【참고 문헌】

- 『교수신문』. 2004. BK21사업 중간평가 시행결과. 12월 13일. [cited 2009.2.20].
 <<http://blog.naver.com/ruijori/40022045759>>.
- 『교수신문』. 2006. 연구업적평가에 사용되는 기준. 6월 20일. [cited 2009.3.24].
 <<http://blog.naver.com/ruijon/40026147494>>.
- 『교수신문』. 2008. 강원대, 교수연구 실적평가 결과발표. 5월 26일. [cited 2009.3.24].
 <<http://blog.naver.com/ruijori/40044696151>>.
- 『교수신문』. 2009. 교수 그리고 대학의 미래. 4월 13일. [cited 2009.3.10]. <<http://www.kyosu.net>>.
- 『교수신문』. 2009. 포스텍 '정년보장교수' 도 평가 한다 실적 낮으면 명예퇴직 유도...상 위 10%는 정년연장-. 3월 16일. [cited 2009.3.28].
 <<http://www.kyosu.net>>.
- 박명수. 1994. 미국대학 교수업적평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대학교육』, 94(11, 12): 78-79.
-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08. 『한국사회과학의 발전 방향과 교수연구업적 평가제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산학연일보사. 1995. 공부 안하는 대학교수, 어떻게 학생 가르치나? 『산학연』, 21(51): 24-32.
- 원영상. 1996. 미국의 대학교수 평가제도 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14: 258-298.
- 윤운성. 1998. 대학교수의 연구업적 평가 방안. 『교육평가 연구』, 11(1): 75-76.
- _____. 1998. 대학교수의 연구업적 평가 방안. 『교육평가 연구』, 11(1): 80-81.
- 이성호. 1995. 『한국의 대학교수: 그 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서울: 학지 사.
- 야스시 아다치 엘비어스社. 2007. 연구업적평가에 있어서의 계량서지학 이용방안. 『전국 대학연구 ·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제27차 추계세미나』. 2007년 11월 14~16일. 제주 KAL호텔: 전국대학연구 ·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 Albach Philip. G. 1991. *The Academic professio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An Encyclopedia* New York: Garland.
- H. R. Bowen and J. H. Schuster. 1986. *American Professors: A National Resource Imperil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onard, W. M., & Schmitt, R. L. 1974. "An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eeting Index of Department Quality." *American Sociologist*, 9: 40-43.
- Perkins, J. A. 1973. *The University as an Organization*. New York: McGraw-Hill, Co.
- Wright, Peter W. G. 1989. "Who defines quality in higher education? Reflections on the role of professional power in determining conceptions of quality in English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18.